

咸錫泰 研究

신재의 치과의원

辛 在 義

ABSTRACT

The Study of Suk Tae Ham

Shin Jae Eui's Dental Clinic
Shin Jae Eui, D.D.S., M.S.D., Ph.D

The western dentistry was introduced to Korea by Japanese and Westerners. There appeared dental technician before dentists in Korea, which was the situation of transitional period. This was when Suk Tae Ham became a dentist.

Suk Tae Ham was born in Youngbyun, Pyoung-An Buk Do Province in 1889, and he was very strict and orthodox but gentle and warm-hearted. It was before formal dentist system when Suk Tae Ham graduated from Japan Dental Professional School. At that time, the regulation for dental treatment was to put opening a dental clinic and practicing dentistry under the control of the police. Suk Tae Ham was registered as the first dentist in February 5, 1914.

Suk Tae Ham tried to show the dignity as a dentist to evoke public attention to dentistry. It seemed that he opened his dental clinic in Seoul in June 19, 1914 and concentrated his efforts on oral surgery, doing some prosthetic dentistry. When Suk Tae Ham was practiced dentistry, there were four Japanese dentists and one American dentist in practice in Seoul. Also, there were three to four Korean dental technician.

Suk Tae Ham belonged to the Dentists' Society of Kyung-sung, but he joined the campaign for dental hygiene, thinking of his own people, Koreans other than Japanese. Dentists were produc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and Korean dentist graduating from Kyung-sung Dental Professional School opened their own dental clinics. Suk Tae Ham organized the Hansung Dentists' Society for Koreans only and became its president. From 1928 on, this organization arranged departments, established the system for discussion and developed in various areas such as academic research, campaign for dental hygiene and welfare of members. Under Japanese pressure, however, it was joined to the Chosun Dentists' Society United, under which the dentist's society was made in each province. Again under Japanese pressure Hansung Dentists' Society and Kyung-sung Dentists' Society was united in October 1, 1942. Suk Tae Ham, as a Korean dentist, tried to contribute to Korean people and Korean students and widen the understanding for dental hygiene. He also lectured on dental hygiene. We can find his distinguished capacity of dentistry from his ad, which stated he could do oral surgery which dental technicians couldn't do. Suk Tae Ham had a keen eye for cultural assets, and he showed his love for his country by collecting them. At the end of Japanese rule there was an order of evacuation and after that he went to his hometown with them. After liberation communist regime was established in the north, when he left his hometown for Hwanghae-Do province and was never heard of ever since. Where has the Kumkangsan yun-juck gone?

In conclusion, Suk Tae Ham was an intellectual who recognized the situation which the group of his own profession faced in the Japanese rule. He also loved his country and his people. But he didn't seem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Japanese rule which he belonged to.

1. 서론
2. 가족, 교육, 나라사랑
3. 치과의사
 - 1) 처음의 의미와 그 후의 치과의사들
 - 2) 최고의 의미와 한성치과의사회
 - 3) 구강위생계몽활동
4. 문화재 수집가
5. 결론

1. 서론

일제는 한국 병합 후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하여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통치 방법은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일은 정치·경제·사회·의료계는 물론 치과의료계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서양치과의학은 외국인들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1885년 미국인 의사 알렌(Horace N. Allen)이 제중원에서 한 구강외과적 시술이 처음이었다. 서양인 의사들은 선교 목적으로 입국하여 구강외과적 수술을 하였다. 서양인 치과의사로 한국에 1897년에 처음 온 사람은 라빈슨(Robinson)이다. 특히 미국인 치과의사 소어스(Sauers)는 국왕인 고종 황제의 보철 치료를 행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의 의식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일본인 치과의사 野田應治는 1893년 7월 이후에 인천과 서울에서 개업을 하였다. 그는 구강영역의 질환이나 치아의 결손을 보철 하는 한편, 구강검사를 하면서 질병 예방법도 소개하였다. 그후 일본인 치과의사는 거류민단의 한성병원과 일본 육군에 한국주차군사령부를 통하여 입국하여 철도 연변에서 개업을 했다.

이 시기에 일본인 입치사는 치과의사에 수배에 달하였다. 한국인 입치사는 치과의사보다 먼저 등장하였다. 1907년 최초의 한국인 입치사는 崔承龍이다.

1912년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咸錫泰가 배출되었다. 함석태에 관한 기록은 아직까지 자료로 남아 있다. 1924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함석태의 글은 당시의 치과계 상황과 구강위생계몽활동을 제공하는 자료이다.¹⁾ 《滿鮮之齒界》의 함석태의 회고록은 그의 개업 초기 치과계 상황을 보여 준다.²⁾ 다음으로 《朝鮮醫報》의 기록은 함석태가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한 이래 회의 체제를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이끌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³⁾ 《滿鮮之齒界》의 기록은 함석태가 활동한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한 사실과 일제의 강압으로 해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⁴⁾

박명진⁵⁾, 신인철⁶⁾, 김영창⁷⁾, 최정봉⁸⁾, 안중서⁹⁾, 윤계찬¹⁰⁾ 등은 함석태를 한국의 최초의 치과의사로 기록하며, 한성치과의사회의 회장으로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로 이끌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한수는 함석태를 한국인 최초의 정규 치과의사라 했으며 치과와 구강외과 2과목을 표방했다고 하였다.¹¹⁾ 기창덕은 함석태의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의 교육 사정을 밝히고, 《朝鮮醫報》에 게재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역원 명단을 찾아내었다. 함석태가 평양의학강습소에서 발간하는 강의록 《醫藥月報》에 치과학을 연제로 게재된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¹²⁾ 윤치호¹³⁾와 주요한¹⁴⁾의 글에서는 치과의사 함석태의 일화를 볼 수 있었다.

치과임상편집부는 함석태의 손자 咸珪의 인터뷰 기사로서 치과의사 함석태 뿐만 아니라 자연인 함석태 그리고 문화재 수집가 함석태를 조명하게 한

1) 咸錫泰,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保健問題는 兒童衛生으로부터 兒童衛生은 口腔衛生으로부터〉, 《東亞日報》, 1924. 2. 11.

2) 《滿鮮之齒界》, 1936. Vol. 5. No. 9, 23-24쪽

3) 《朝鮮醫報》, 《雜報 漢城齒科醫師會 役員 改選》, 1934. Vol 3, No. 4, 31쪽.; 1936. Vol 6, No. 1, 21쪽.

4) 《滿鮮之齒界》, 1935. Vol. 4. No. 7, 42쪽.; Vol. 4. No. 10, 33쪽.; Vol. 11. No. 10, 37쪽.

다.¹⁵⁾ 박병래는 문화재 수집가로 함석태를 상세히 알게 하는 결정적인 글들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일화까지 제공한다.¹⁶⁾ 정양모¹⁷⁾와 장병혜의 글에서는 문화재 수집가들의 분위기를 일깨우게 한다.¹⁸⁾

함석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바가 없다. 함석태는 일제 강점기에 치과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속한 전문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한국인으로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속한 일제의 강제 통치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함석태를 자연인,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인, 그리고 문화재 수집가로 조명해보려 한다.

2. 가족, 교육, 나라사랑

咸錫泰는 1889년 平安北道 寧邊郡 梧里面 細竹里에서 부유한 집안의 獨子로 태어 났다. 함석태는 江陵 咸氏 熙川派이다. 부친은 咸泳澤으로 成均館 進士와 議官을 지냈다. 이러한 직책에서 알 수 있

듯이 함석태의 家는 지방의 재력에 기반을 둔 鄉班 이리라 추측이 된다.¹⁹⁾

고향에선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녔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니까 상당히 부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²⁰⁾

함석태는 당시에는 특별히 생소한 학문이었던 치과 의학을 택한 것은 함석태의 家에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등 사회사업 할 때의 견문이 작용했을 것이다. 함석태의 家는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등 사회사업을 하며 문명·개화에 관심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석태는 유복하고 순조로운 성장만큼 배움의 길도 순탄했다. 그는 1909년 이전에 일본 동경에 유학하였다.²¹⁾

그러나 함석태의 日本齒科醫學學校의 입학전의 교육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는 日本齒科醫學學校의 입학에 자격은 갖추었으리라 짐작된다. 함석태는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를 1912년에 졸업하였다. 함석태는 인정과 제2회 졸업생이었다. 1907년 6

- 5) 朴明鎭, 〈한국의 치과 의학〉, 《대한치과 의학사 연구회지》, 1960. 9-10쪽.
- 6) 申仁澈, 〈한국근대치과 의학의 연역〉, 《대한치과 의학사 연구회지》, 1960. 23-24쪽.
- 7) 金永昌, 〈8·15후의 치과계 발전상〉, 《대한치과 의학사 연구회지》, 1960. 33쪽.
- 8) 崔正奉, 〈한국치과계개관〉, 《대한치과 의학사 연구회지》, 1960. 40쪽.
- 9) 安鍾書, 〈우리나라 치과계의 속昔談〉, 《대한치과 의학사 연구회지》, 1960. 69쪽.
〈1920-30년대 나의 치과 의업 회고기〉, 《대한치과 의학사 연구회지》, 1961. 54쪽.
- 10) 윤계찬, 〈한국치과 의학 발달과정의 고찰〉 1, 2, 3, 《치계》, Vol. 2, No. 9, 10, 12, 1968.
- 11)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453쪽.
- 12)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 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195-202쪽.
- 13) 김상태 편저, 『윤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303쪽
- 14) 주요한, 『안도산전』, 삼중당, 1975. 341쪽.
- 15) 치과임상편집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1985; 6, 23-29쪽.
- 16) 박병래, 중앙일보, 1973. 10. 1. 〈집안망치는 골동〉; 1973. 10. 20. 〈금강산 연적〉 골동품비화40년
- 17) 정양모,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도록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1988.
- 18) 장병혜, 《상록의 자유혼》, 창랑장택상기념사업회, 1992.
- 19) 李漢水, 『李漢水齒學博物誌』, 석암사, 1976. 137쪽;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 20) 치과임상편집부, 〈손자 咸珪의 인터뷰〉, 앞의 글, 24쪽.
- 21)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월 설립시에 日本齒科醫學學校의 수업은 2년제이었으나, 1909년 8월 전문학교령에 의한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3년제로 승격되었다. 함석태는 1909년 8월 이전에 입학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재학생은 인 정과로서 수업을 받고, 전문학교령에 의한 3년 제로 승격된 후 입학한 학생들은 지정과로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이다.²²⁾

함석태는 치과의사로서 처음이므로 당당함을 보여주어 사회에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데에도 책임을 감당하려 하였다. 함석태는 錦衣還國을 바랬으나 조선사회는 치과의학에 이해가 없어 개업을 해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耳鼻科를 더 전공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1913년 말까지 동경에 머물렀다.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校長 中原市五郎 등은 일본과 조선은 치과의 발전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조선은 장래가 유망하리라는 격려를 받고 돌아 왔다.²³⁾

함석태는 외아들 哲薰과 두 딸 순정과 문을 두었고, 양녀로 姜英才가 있다. 함석태의 손자로는 玩과 珣, 어렸을 때 죽은 珍(?)과 옥(玉?), 그리고 막내 珏이 있었다. 함석태의 다섯 손자의 이름은 함석태가 지었으며, 각자마다 임금왕 변(王)이 들어가게 지었다. 완은 1965년경에 사망했고, 순은 경관으로 근무하다 6.25 때 실종되었다. 그리고 막내 珏은 살아남아 증명하고 있다.²⁴⁾

함석태는 손자 함각에게는 매우 근엄하고 엄숙하신 편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막내 손자인 함각을 특별히 귀여워해서 식사 때는 겸상을 했는데 함각은 항상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 밥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먹어야 했다.²⁵⁾ 문화재 수집가 박병래에게는 성품이 온아 하고 다감한 인정을 가진 분이였다. 박병래보다 여러 해 손위였으나 피차 선생으로 호칭하면서 간절하고 신애가 넘치는 존경심으로 대해왔다.²⁶⁾

함석태는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의 증언에 의하면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남대문역(서울역)에서 齋藤實 총독을 저격했던 우국지사 姜宇奎의 어린 손녀 姜英才를 함석태가 맡아 친딸처럼 키웠다는 것이다. 강영재 집에서 확인한 함석태의 사진 중에는 강영재가 함석태의 친손자들과 어울려 있었다.²⁷⁾ 그러나 함석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웠다는 사실은 함석태의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 된다.²⁸⁾

함석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그는 장택상, 윤치영, 한상익, 박병래, 이한복, 이만규, 도상봉, 손재형과 이여성 등과 문화재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吳世昌의 지도로 민족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을 써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²⁹⁾ 문화재 수집가 함석태는 그 열성이 하도 대단

22)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앞의 책, 344쪽.

함석태가 졸업한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는 '임상의그룹 20일회'를 모체로 하였다. 이 '임상의그룹 20일회'는 中原市五郎에 의하여 1901년에 설립되어 학술 연찬과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치과의사의 사회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1906년 치과의사법에 따르는 公私立齒科醫學學校 指定規則이 제정되었다. 1907년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본치과의학회'를 결성하고, 6월에 私立公立齒科醫學學校 설립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다. 1909년 6월 학교명을 日本齒科醫學學校로 개칭되었다. 이 학교는 따라서 이 학교는 치과의사법과 치과의학교지정규칙에 의한 최초의 치과의학교였다. 현재 日本齒科大學이다.

23) 《滿鮮之齒界》, 1936. Vol. 5. No. 9, 23-24쪽.

24)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25)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26) 박병래, 앞의 신문, <금강산 연적>

27) 강영재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수와 농협중앙회부회장을 지낸 채병석과 결혼했다. 이 가정에서 발견된 사진 속에서 함석태와 그 자녀들과 강영재는 어울려 있었다. 이 사진 속의 함석태가 오늘 남아 있는 유일의 함석태의 사진이다.

28)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29) 오세창 저, 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근역서화정 상, 하>>, 서울: 시공사, 1998.

해서 심지어 기인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일화를 남긴 분이였다. 함석태는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바늘 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 모았다.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한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섬세함일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³⁰⁾

함석태는 치과의사로서 안창호를 치료하기도 했다. 안창호는 기록에 의하면 치아가 무척 나뻐던 것 같다. 앞니 6개만 두고 모두 빼어야 할 정도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은 돌 볼 틈이 없었던 것 같다.

1932년 6월 22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경무국의 미와 씨가 찾아왔다. 그는 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이 유치장에서 미와 씨로부터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는 안창호 씨란 걸 알고,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안씨는 27년 동안 너무 많이 변해서, 미와 씨가 소개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미와 씨 말로는 안씨의 치과 진료를 위해 함께 치과에-함석태 씨에게-다녀오다가 우리 집 부근을 지나는 김에 잠깐 들려 우리에게 인사를 나눌 기회를 주어, 날 놀라게 해줄 심산이었다고 한다. 난 미와 씨의 사려 깊은 친절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³¹⁾

도산이 상해에서 체포되기 전에 틀니를 할 작정으로 앞니 여섯 개만 두고 나머지를 전부 빼었었는데, 미치이를 하기 전에 체포되었으므로, 상해 일본 영사관에 구류되는 동안에 이무상 치과의사가 출장하여 틀니를 하였

다 한다. 그것이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에 있을 때에 부러져 치과의 함석태가 출장하여 치료했고,³²⁾

함석태가 안창호를 치료했다는 사실, 특히 일제의 최첨단 앞잡이 미와가 안창호를 데리고 함석태에게 치료받게 했다는 것은 우연하지 않은 일로서 함석태의 치과의사로서의 명망과 당시 사회에서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3. 치과의사

1). 처음의 의미와 그 후의 치과의사들

함석태는 1912년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했으나 한국에서는 치과의사로서 활동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일제는 1913년 11월 15일에 이르러서 의료 관련 각종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들 규칙에는 醫師規則, 齒科醫師規則, 醫生規則이 있었다. 이 치과의사규칙에는 치과의사가 되려면 朝鮮總督의 免許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³³⁾

이 규칙은 일본 국내의 치과의사법에 따라 문부대신이 지정한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와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치과의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한국 내에 치과의학교도 없었고 치과의사시험제도도 없었다.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치과의사가 되는 방법이 없고 일본이나 외국에서 동등의 자격을 얻는 길뿐이었다.

일제는 통치 방침으로 질서 유지를 언명하고, 그 방법으로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 치과의사는 의사와 의생과 같이 개업과 의료행위까

30) 박병래, 앞의 신문, 〈집안망치는 골동〉; 〈금강산 연적〉

31) 김상태 편역, 『운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303쪽.

32) 주요한, 앞의 책, 341쪽.

33) 《조선총독부관보》, 〈부령 제101호 치과의사규칙〉 제389호, 1913. 11. 15.

제1조에 “치과의사가 되고 저 하는 者는 아래의 資格을 가지고 朝鮮 總督의 免許를 얻을 것을 要함.”이라고 되어 있다. “1. 치과의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자.”라 하였다. 이는 치과의사법 제1조 문부대신이 지정한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와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2. 조선 총독이 지정한 치과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치과의업을 영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치과의사규칙에 따른 취급수속이 12월 11일에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훈령 갑 제45호로 제정되었다.³⁴⁾ 이렇게 함석태는 전문학교를 졸업 후 규칙과 취급수속이 마련되고 1914년 2월 5일에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되었다.³⁵⁾

함석태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치과의사로서 당당함을 보여주어 사회에 치과의학에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그는 1914년 6월 19일경에는 서울 南部 曲橋(新街 三角町 一番地 電話 本局 七九番) 부근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개업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수술무료'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그가 수술에 있어서는 입치사와는 달리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 개업의 방편으로 '수술무료'를 안내하고 있었을 것이다.³⁶⁾ 이 '수술무료'는 발전하여 1924년경에는 齒科와 동등하게 口腔科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함석태는 보철 등 치과일반을 치료하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³⁷⁾

함석태가 개업한 1914년경 서울의 치과의료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인 치과의사가 4명 개업하고 있었고³⁸⁾, 미국인으로 1906년 1월에 한국 서울에 주재하는 치과의사 한(David Edward Hahn)이 한국명 韓大偉로 개업하고 있었을 뿐이었다.³⁹⁾ 한편 일본인 입치사들이 통제가 없는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입치사는 치과의사에 몇 배가 있었다. 한국인 입치사들도 3-4 명이 치술원을 개원하며 서양치과의학의 도입과정에서 代行階層으로 서양치과의학을 수용한 치과의료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⁴⁰⁾

일본인 치과의사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함석태는 '독무대'로 몇 년을 지내게 되었다.⁴¹⁾ 1919년에 金昌圭⁴²⁾가 광화문에서, 1921년에 李熙昌⁴³⁾이 무교동에서 개업을 했으나 개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한편 1917년에 韓東燦⁴⁵⁾은 평양에서, 1922년에 林澤龍⁴⁶⁾은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인 치과의사는 5명 정도가 있었다.

34) 《조선총독부관보》, 〈훈령 갑 제45호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급 의생규칙 취급수속〉 제411호, 1911.12.11.

35)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제482호, 1914. 3. 11.

36) 《매일신보》, 〈광고〉 1914. 6. 19.

37) 《동아일보》, 〈광고〉 1924. 원단.

38) 咸錫泰, 앞의 글.

即 距今 十年前 大正三年(1914년)에 本人이 開業할 當時에 京城에 日本人 齒科醫師가 四人이요 朝鮮人側으로 本人이 一人이던바

39) H. B. Hulbert, 『The Korean Review』vol.6, 1906. pp.315.

40) 《滿鮮之齒界》, 1936. Vol. 5. No. 9, 23-24쪽.

41) 咸錫泰, 앞의 글.

日本人 同業者는 恒常 本人을 向하여 畚은 獨舞臺이닛가 조호리라고 하고 稱慕합니다 만은 이 獨 舞臺야 말로 무슨 意味의 獨舞臺이닛가 暫間 對答하기 거북합니다. 假令 覆巢之下의 一卵이 完全하 얏다면 그런 意味의 獨舞臺가 안인가 하고 自愧自歎합니다.⁴²⁾

42)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10호〉제1682호, 1920. 4. 20. 동양치과의학전문학교(현 일본대학 치학부)졸업

43)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17호〉제1682호, 1922. 1. 14.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졸업

44) 咸錫泰, 앞의 글.

即 距今 十年前 大正三年(1914년)에 本人이 開業할 當時에 京城에 日本人 齒科醫師가 四人이요 朝鮮人側으로 本人이 一人이던바 今十年後 大正十三年(1924년)에 至하여 日本人은 二十一人이 되고 朝鮮人은 亦一人에 不過하오니 참으로 可惜可憐한 일이 아니오닛가 無論 朝鮮側으로도 其間에 一二人의 開業者가 有하얏스나 如何間 存續치 못하는 것을 보면 此로써 우리 社會의 口腔衛生思想의 程度를 可知할 것이 올시다.

45)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9호〉제1682호, 1918. 3. 18.

東京齒科醫學專門學校 졸업

46) 이희창의 1년 후배, 1922년 귀국,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졸업.

이러한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말하는 '독무대' 는 치과의사규칙에 의하여 치과의사가 배출되므로 끝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치과의사시험규칙은 1921년 2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치과의사규칙이 발표된 후 8년만의 일이었다. 조선총독부치과의사시험규칙의 시행 주무부서가 總督府 警務局 衛生課로 이 시험에서도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경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⁴⁷⁾ 1921년 10월 9일 제1회 치과의사시험에서 高相穆이 합격하였다.⁴⁸⁾ 1922년 9월 13일 제2회 시험에서 裴珍樞⁴⁹⁾, 李成模, 邊世熙⁵⁰⁾, 李相喆⁵¹⁾, 兪昌宣⁵²⁾이 합격되었고⁵³⁾, 1923년 5월

16일 시험에서 金然權이 합격하였다.⁵⁴⁾

정리하면 함석태는 1912년에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했다. 함석태는 한국에 치과의사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졸업한 것이었다. 제도가 마련되자 함석태는 1914년 2월 5일에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하였다. 함석태는 1914년 6월 19일경에는 서울 南部 曲橋 부근에서 개업을 시작하였다. 함석태는 보철 등 치과일반을 보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2명의 치과의사가 개업을 했으나 개업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치과의사규칙에 의하여 치과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하

47)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치과의사시험규칙〉제2550호, 1921. 2. 24.

조선총독부령 제27호인 조선총독부치과의사시험규칙 제1조에는 시험은 매년 京城에 시행하며 시험기간은 告示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2조에는 시험을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제1부는 필기시험으로 解剖學(組織學 포함), 生理學, 藥理學, 病理學(細菌學 포함), 口腔外科, 齒科治療學(齒科矯正學 포함), 齒科技工學였으며, 시험은 치과의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와 정도였다. 제2부는 실습시험으로 口腔外科學, 齒科治術學, 齒科技工學였다. 제3조는 시험을 제1부와 제2부를 나누어 치를 수 있게 했으며, 제1부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2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제4조는 시험자의 자격으로 3년 이상의 치과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5년 이상 치과외술을 修業한 자로 하였다.

48)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 제16호〉제2824호, 1922. 1. 14.

《동아일보》, 1921. 10. 16.

九日 施行한 第一回 朝鮮總督府 齒科醫試驗은 受驗者 總員이 四十名인 바 合格者는 左記六名이라더라. 合格者, 高相穆 外 日本人 五人

49)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제39호, 제3385호, 1923. 11. 14.

50)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제25호, 제3102호, 1922. 12. 13.

51)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제22호, 제3073호, 1922. 11. 14.

52)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제24호, 제3102호, 1922. 12. 13.

53) 1922년에는 배진국, 이성모, 변세희, 이상철, 유창선 등 5인이 합격하였으니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동아일보》 1922. 6. 28.

本年 十月 朝鮮總督府에서 醫師, 齒科醫師 試驗을 施行할 터인데 期日 等은 左와 如하더라.

齒科試驗: 期日 1922년 9월 13일부터.

- 試驗場所: 京城醫學專門學校
- 願書締切: 1922년 8월 15일
- 願書提出官廳: 朝鮮總督府 警務局 衛生課

1922. 8. 15.

齒科醫 開業試驗 來 9月 13일부터 總督府에서 施行할 齒科醫師 開業試驗 受驗者는 19名 이더라

1922. 9. 17.

齒科醫 試驗 終了

第2回 齒科醫師試驗은 去 13일부터 總督府醫院內 齒科學校에서 施行한 事는 既報와 如하거니와 同日 試驗者는 50명인데 15일로써 學說 試驗을 終了하얏더라.

1922. 9. 22.

齒科醫 合格者 總督府醫院에서 施行한 齒科醫師 試驗에 合格한 者 中 朝鮮人인 左와 如하더라.

齒科醫師 試驗 合格者

李成模, 裴珍樞, 邊世熙, 李相喆, 劉昌宣, 同第一部 學說 試驗合格者 方貞均

54) 《조선총독부관보》, 〈의적등록 치과의사부〉제41호, 제3619호, 1923. 9. 4.

《동아일보》, 1923. 2. 14.

였다. 이 당시의 치과의사의 개업과 의료행위는 경찰의 감시를 받는 제도였다.

2). 최고의 의미와 한성치과의사회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의 배경은 이러하다. 함석태는 개원한 후 몇 명이 안 되는 치과의사였기 때문에 자연히 일본인 동업자들에게서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함석태는 동업자들의 모임인 경성치과의사회에 참가하여 친교를 가지게 되었다. 함석태는 경성치과의사회의 한사람으로 일본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검사 또는 치아위생에 대한 계몽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함석태는 한국 사회와 초등학교의 구강위생에 대하여 봉사할 결심을 새롭게 하였다.⁵⁵⁾

1922년 4월 1일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배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 환경은 일본인들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었다.

“허다한 국난과 불가피하게 봉착하는 애로를 극복하여 야만 하는 學窓生活 가운데 학문의 탐구에 專力하는 동시에 적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항쟁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역경과 싸우면서 수업한 연후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만 습득한 臨床 기술을 응용하는 齒科開業醫로서 비교적 안이한 생업을 택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學窓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에 한하였던 것이다.”⁵⁶⁾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學窓生活を 국난과 애로를 극복하며 학문의 탐구와 유형무형의 항쟁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업을 마친 후에는 臨床 기술을 응용하는 개업의로서 비교적 안이한 생업을 택하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學窓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뿐이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다.

세브란스를 사직하고 빠고다공원 뒤에서 2-3개월 개업을 하다가 곧 친진으로 갔다. 빠고다공원 뒤 2층 집에서 개업을 하니 첫 달 수입이 700엔이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일반의사들도 벌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나로서는 그래도 수지가 맞지 않았다.

내 포부뿐 아니라 그때 젊은이들의 포부는 최근 청년들의 그것과는 비할 수 없을 만치 크고 높은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좀더 크게 좀더 광대한 지나 대륙에나 가서 힘껏 일해 보고 싶은 생각을 했다. 그러자 친진에 있는 명성 높은 중국인 상류층 가정 출신들이 공부하는 남개 대학에 치과교의로 갔다.⁵⁷⁾

이러한 상황에서 뜻 깊은 하나의 단체가 탄생되었다. 한국인만의 漢城齒科醫師會가 설립된 것이다. 漢城齒科醫師會는 1925년 4월 15일 京城齒科醫學學校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1925년에 조직된 齒科醫師會였다.⁵⁸⁾ 함석태는 漢城齒科醫師會의 會長이 되었다. 총무에는 京城齒

總督府에서는 齒科醫師 規則 第1條에 依하여 來 5월 16일부터 京城醫學專門學校에서 齒科醫師 의 試驗을 施行할 터이라는 此에 應코자 하는 人은 4월 15일까지 齒科醫師 試驗規則 第六條에 規定한 願書, 添付書類 及 사진을 具하여 總督府警務局 衛生課에 提出함이 可하더라

1923. 3. 23.

齒科醫師試驗 1923년도 朝鮮齒科醫師 시험은 5월 16일부터 京城醫學專門學校에서 施行할 터인데 受驗志願者는 4월 16일까지 警務局 衛生課에 願書を 提出함이 可하더라

1923. 6. 4.

過般에 舉行한 第三回 齒科醫師試驗에 合格한 者는 9명인데 日本人인 八名이요, 朝鮮人은 多年 總督府醫院 齒科에서 勤務하던 金然權氏가 合格되었다더라

55) 咸錫泰, 앞의 글.

56) 金永昌, 앞의 글, 33쪽.

57) 安鍾書,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54쪽.

58) 불행히도 설립한 월일은 전하지 않는다. 경성치과의학교 졸업생이 나온 후라 했으니 4월 15일 이후 일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科醫學校 제1회로 졸업한 安鍾書를 선임하였다. 설립 초기의 회원은 7명으로, 金溶璫, 崔永植, 朴俊榮은 京城齒科醫學校 제1회 졸업생이었고, 趙東欽은 1925년 大阪齒科醫學專門學校 졸업생이었고, 金然權은 1923년 5월 16일 치과의사시험에서 합격하였다.⁵⁹⁾

함석태는 漢城齒科醫師會의 會長으로 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갔다. 회원은 매년 증가되었다. 1926년에는 文箕玉, 朴準大, 李壽萬이 입회하였고, 1927년에는 申獻植, 申應鉉이 참가하였다. 1928년에는 朴明鎮, 張志遠, 金鐘瓚, 南壽熙, 申仁澈, 李有慶, 金溶奉, 李天興이 가입하여 회원이 20명이 되었다.⁶⁰⁾ 또한 1933년 말 총회에서 선출된 李東奐, 鄭保羅, 金鐘煥, 趙敬鎬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은 1928년 이후에 입회한 회원으로 추정된다.⁶¹⁾ 이와 같이 1936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鄭保羅 이외에 安炳植, 韓道洙, 李壽萬, 金喆庸 등도 1928년 이후에 가입된 회원일 것이다.⁶²⁾

함석태는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키었다.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되었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임원이 개선되었다. 회장에 는 함석태가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조동흠이 선임

되었다. 이사에 는 李東奐, 이유경, 최영식, 평의원에 박명진, 鄭保羅, 金鐘煥, 남수희, 趙敬鎬를 선출하였다.⁶³⁾ 1936년 총회에서도 함석태는 회장으로 유임되었고, 부회장 조동흠이었다. 이사에 는 鄭保羅, 최영식, 남수희, 평의원에 박명진, 安炳植, 韓道洙, 李壽萬, 金喆庸을 선출하였다.⁶⁴⁾ 이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석태는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치과의학회 및 조선치과의사회에도 참석하는 등 당시 의료계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1927년과 1928년 朝鮮齒科醫學會 總會에서는 宴會係에 役員으로⁶⁵⁾, 1928년 7월의 京城齒科醫師會에서는 幹事로 참석하였다.⁶⁶⁾ 그는 1936년과 1938년에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대표하여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평의원이었다.⁶⁷⁾ 1936년과 1937년 6월 4일 蟲齒豫防의 날에 漢城치과의사회는 회원과 협력하여 무료 검사 및 치료하기도 했다. 특히 1937년 6월 4일 漢城齒科醫師會 회장 咸錫泰는 제2방송을 통해 충치예방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⁶⁸⁾ 그는 1941년 5월 4일 경성 중앙그리스도청년회관에서 漢城齒科醫師會의 주최로 구강위생 및 학생의 건강을 위한 강연 및 영화회를 경성 치과의사회와 나누어 실시하기도 했다.⁶⁹⁾ 그는 1943년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⁷⁰⁾

함석태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1935년 9월 25일 한

59) 安鍾書, 〈우리나라 치과계의 속昔談〉, 69쪽.

1925년에 치과의사회를 한국사람끼리 조직하였다. 그때의 초대회장은 함석태이었고 회원은 전부 가 7명 김용진, 김용권, 조동흠, 김창규, 박준영 그리고 나 안중서였다. 재미있는 것은 회원 7명이기에 모두가 간부요 모두가 회원이라는 것이었다.

60) 申仁澈, 앞의 글, 23-24쪽.

61) 《朝鮮醫報》, Vol 3, No. 4, 31쪽. 1934.

62) 《朝鮮醫報》, Vol 6, No. 1, 21쪽. 1936.

63) 《朝鮮醫報》, Vol 3, No. 4, 31쪽. 1934.

64) 《朝鮮醫報》, Vol 6, No. 1, 21쪽. 1936.

65) 《조선치과의학회 잡지》, 1927. No.6, 38-39쪽.; 1928. No.10, 40-43쪽.

66) 《조선치과의학회 잡지》, 1928. No.8, 33쪽.

67)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41. 146쪽.

68)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41, 143쪽.

69) 최효봉, 이병태, 〈오람시대의 우리나라 치과 14〉, 《치과연구》1987. Vol.22. No.3. 50쪽.

70) 최효봉, 이병태, 〈오람시대의 우리나라 치과 17〉, 《치과연구》1987. Vol.22. No.6. 49쪽.

성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게 되었다.⁷¹⁾ 이때까지의 치과의사회는 임의 단체였으므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한사람 한사람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치과의사회에서 발발된 분규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는 치과 의사 한사람 한사람을 齒科醫師會에 強制入會의 制度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⁷²⁾ 이것은 법정치과의사회의 건으로 정착되어, 實施 促進하고자 했다.⁷³⁾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법정치과의사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에게 가시적인 어려움이 작용하여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35년 이후 경성치과의사회와 같은 치과의사회로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1936년, 1937년의 충치예방의 날과 경성치과의사회의 간담회, 25주년행사, 그리고 군사후원연맹가맹, 1938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입혼식, 1941년의 치아와 건강전람회,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이 상업조합령으로 발족할 때에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⁷⁴⁾

1940년 일제는 국방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총력운동 조선연맹을 만들어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었다.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의료계는 위생사상의 보급이라는 명분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 위생과장 西龜三圭은 朝鮮聯合齒科醫師會總會에 매년 참석하는 내빈이었다. 그는 실제로 議

案이 총독부와 관계된 문제에는 직접 관여했다.⁷⁵⁾

1940년 3월 31일 朝鮮聯合齒科醫師會 제18회 總會는 道齒科醫師會 設立에 關한 件을 통과시켜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아래 도 단위 치과의사회를 발족하였다. 이 도 단위 치과의사회는 자재 배급 등을 이용하여 통제와 억압을 하게 된다.⁷⁶⁾ 1941년 3월 23일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소속 가맹회장 회의에서 朝鮮聯合齒科醫師會 改組의 件으로 종래의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도 산하로 들어가고, 그 후 각 지방 치과의사회는 자연히 소멸되도록 결정했다.⁷⁷⁾

다음으로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법적인 뒷받침을 하려 하였다. 1941년 5월 25일 제19회 총회는 齒科醫師會令 發布 促進에 關한 件과 1942년 5월 24일 제20회 정기총회는 齒科醫師會令 發布에 關한 건이 통과된 것이 그러한 것이다.⁷⁸⁾ 이후 일제는 서울에서 1942년 10월 1일에 한성치과의사회를 경성치과의사회와 강제로 합치게 한다.⁷⁹⁾ 이렇게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의 통제와 압력으로 와해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성치과의사회는 자랑스럽게 회의록 등은 남길 수 없었으나 의연하게 존재했음은 증명되고 있다.⁸⁰⁾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친목기관으로 매 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會의 목적은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임상적 토론으로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을 행하여 상호간에 지식을 교환하는 정

71) 《滿鮮之齒界》, 1935. Vol. 4. No. 7, 42쪽.; Vol. 4. No. 10, 33쪽.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 한성치과의사회가 함흥, 목포, 신의주, 전주, 광주, 평남, 수원, 개성의 치과의사회와 함께 한성치과의사회가 참석하였다.

72) 《滿鮮之齒界》, Vol. 1. No. 1, 32-35쪽.

73) 朝鮮聯合齒科醫師會 總會는 1933년, 1934년, 1935년. 1939년에 법정치과의사회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했다.

74)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35, 137, 141, 142, 143, 147, 152, 162쪽.

75) 최효봉, 이병태, <요람시대의 우리나라 치과 보원편5>, 《치과연구》1988. Vol.23. No.6. 66-75쪽. 76) 이 문제는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朝鮮聯合齒科醫師會 總會의 주요 안건이었다.

77)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60쪽.

78)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61, 164쪽.

79) 《滿鮮之齒界》, 1942. Vol. 11. No. 10, 37쪽.

80) 1942년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할 때의 이사장은 조동흠이었고, 회장은 박명진이었다.

도이었으나 회 운영이 잘되었다고 증언되고 있다.⁸¹⁾

3) 구강위생계몽

함석태는 구강위생계몽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함석태는 치과위생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1913년 醫生規則이 반포되어, 종래의 한의사들이 醫生免許를 얻게 됨에 따라 서양의학에 의한 소독법과 위생법에 관한 강습이 요청되었기 때문이었다. 함석태가 평양의학강습소에서 발간하는 강의록 《醫藥月報》에 치과학을 연제로 게재된 것은 통상교육으로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육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⁸²⁾

함석태는 개업 안내 광고에서도 차별화된 구강위생계몽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함석태의 개업안내 광고를 보면 '수술무료'라는 강조된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함석태가 보철 등을 하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입치사들이 하지 못하며 출혈이 오는 구강외과 수술을 치과의사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咸錫泰 齒科 口腔科醫院 敢히 時代의 要求에 順應하여 簡單히 紙上으로써 年賀의 禮를 略함

咸 錫 泰

京城府三角町 一番地 電話(本局) 七九番⁸³⁾

함석태는 한국 사회에서나 교육계에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랐다. 그는 지난 10년을 한결 같이 치과의사로서의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일본인 치과의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독무대로 인구비례에서 일본인들에 비하여 유리하나 개업이 어려웠고,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직업인으로 한국인 치과의사

는 힘든 상태였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조적인 초과이용 현상을 말한 것이다.

十年前 大正三年(1914년)에 本人이 開業할 當時에 京城에 日本人 齒科醫師가 四人이요 朝鮮人側으로 本人이 一人이던바 今十年後 大正十三年(1924년)에 至하여 日本人은 二十一人이 되고 朝鮮人은 亦一人에 不過하오니 참으로 可惜可愧한 일이 아니오닛가(중략)

此可憐한 獨舞臺의 過程을 經過하는 十年의 長一月에 自己營業 以外的의 무슨 齒科醫師로서의 社會奉仕의 何等勞力이든지 辭치 아니 하겠다는 생각은 實히 綿綿不絶이 었습니다. 그러나 此方面으로 우리 社會의 衛生觀念이 一向不進하니 至今形便으로는 不禁이 自禁으로 朝鮮社會와는 相互交渉이 적어지고(중략) 願컨데 우리 一般社會나 教育家에서도 좀 더 一般衛生 乃至 口腔衛生을 理解하여 주면 비록 一個人의 微力으로라도 幸히 附職의 望을 達할가 하나이다.⁸⁴⁾

함석태는 한국 학생의 口腔의 健康狀態는 實地調査한 일이 없어 명확하지 못하였으나 家庭에서 학생의 口腔衛生에 注意하기를 바랐다. 한국인 학교는 구강검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함석태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부족하여 일본인 학교에 가서 구강검사를 하였다. 함석태가 검사한 日本 학생의 口腔檢査 成績은 蟲齒 없고 齒牙의 發育이 完全한 학생이 櫻井小學校 학생수가 963명중에 7-8명에 不過하니 1%가 못되었다. 함석태는 이러한 통계와 비교하여 한국인 학생의 구강위생에 관심을 보였다.

함석태는 한국인 학생의 칫솔질에 관심을 가졌다. 한국인 학생의 칫솔질에 있어도 일본 학생과의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닦는 습관과 치아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에게 구강위생에 관한 설명과

81) 申仁澈, 앞의 글, 23-24쪽.

82)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200쪽.

83) 동아일보, 1924년 원단 광고

84) 咸錫泰, 앞의 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齒刷子の 使用率 卽 每日 規則的으로 養齒를 하는 兒童의 數를 調査한 比例로 말씀하여 보면 小學敎生徒 一學年으로 四學年까지의 兒童年齡이 七八歲로 乃至 十, 十一歲間인데 此程度 兒童의 齒刷子 使用하는 數가 大略 百에 對하여 二十 乃至 三十이나 됩니다. 그런데 朝鮮兒童의 同程度의 年齡으로 每日 正規)로 이를 닦는 數가 如何할가 하면 더욱 小數로 생각합니다. 其理由는 日本 兒童의 使用하는 齒磨粉은 甘味가 잇고 容器가 美麗하고 잇솔이 입부닛가 兒童이 一種 好奇心으로 玩具品가치 使用하는 故로 不知不識間에 習慣이 되야 每日 계속 使用하지 만은 朝鮮兒童은 家庭의 自來慣習에 依하여 多部分은 齒磨用으로 食鹽을 使用하나니 食鹽은 鹹刺할 뿐 아니라 此를 手指에다 못쳐서 딱그라고 命令的으로 가르친데야 到底히 兒童心理에 嗜好할배 萬無합니다. 그럴뿐 아니라 食鹽養齒일망정 어른들이 規則的으로 勵行시키는 家庭도 僅少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京城가튼 都會地兒童들은 朝鮮兒童들도 日本兒童과 가치 菓子나 糖分을 만히 먹습니다. 그러면 齒牙를 破壞하는 것은 가치하고 此를 豫防하는 것은 그와 가치 떠러지면 그 結果가 如何하게읍니가 實로 彼此의 重大問題 임니다.

日本兒童의 健康齒牙가 百對一이 弱한 比例 보담도 또 數倍떠러 질 것이 올시다. 그러면 齒牙健康은 全部 零이라 할 수 잇습니다. 이 比例를 熟知하시는 有志와 兒童을 親愛하시는 諸君은 此 口腔衛生의 問題를 더욱 注意 研究할 必要가 切實합니다.⁸⁵⁾

칫솔의 使用率 卽 每日 規則的으로 養齒를 하는 일본 학생은 年齡이 7-11歲에서 20-30%였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養齒를 하는 慣習 때문에 더 적을

것이다. 日本 학생이 使用하는 치약과 칫솔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 학생은 食鹽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게 한다. 이를 소금과 손가락으로 닦는 습관과 치아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에게 구강 위생에 관한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食鹽養齒일망정 어른들이 規則的으로 시키는 家庭도 적다. 서울의 한국 학생들도 日本 학생과 같이 菓子나 糖分을 많이 먹게 되었다. 蟲齒를 豫防하는 것은 實로 중요한 問題이다. 한국 학생이 日本 학생의 齒牙 健康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를 熟知하여 口腔衛生의 問題를 더욱 注意 하여야 하겠다.

한편 일본에서는 1920년 11월 5일 일본연합치과 의사회와 동경시치과 의사회가 공동 주체로 내무성 지원 아동위생전람회를 계기로 ‘齒의 날’ 행사를 하였다.⁸⁶⁾ 서울에서는 1926년 5월 4일 ‘護齒日’로 정하고 구강위생계몽을 하게 되었다. 1927년에는 구강위생강연회를 하였다.⁸⁷⁾ 1928년 제1회 ‘충치예 방의 날’은 각 치과의사회, 문부, 내무성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⁸⁸⁾

1930년 일본인들이 全鮮齒科醫師會 주최로 “충 치예방의 날”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까지 한 성치과의사회에서는 단독으로 나름대로 행사를 하 기도 했으나 한국인 치과의사는 일본인 치과의사 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⁸⁹⁾ 이 행사는 학교 와 사회를 위하여 계획되어 구강검사를 비롯하여 구강위생상담, 무료진료, 강연, 표어모집, 팜프렛 제작 배포, 전람회, 슬라이드 및 영화 상영 등을 행 하였다.

이와 같이 함석태는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와 한국 학생을 생각하

85) 咸錫泰, 앞의 글.

86)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96쪽.

87) 신인철, 앞의 글, 23쪽.

88)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앞의 책, 196쪽.

89) 신인철, 앞의 글, 24쪽.

고 있었다. 그는 1928년 제1회 '충치예방의 날'이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되기 이전부터 한결 같이 한국인 치과 의사로서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위생관념의 부족을 한국 사회에서나 교육계에 좀 더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함석태는 일본인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하는 중에도, 칫솔의 사용에 있어도 한국 학생의 口腔衛生에 注意하기를 계몽하였다.

4. 문화재수집가

함석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그는 장택상, 윤치영, 한상억, 박병래 그리고 이한복과 이만규, 도상봉, 손재형와 이여성 등과 문화재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卍世昌의 지도로 민족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을 써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들은 문화재 수집 취미 덕분에 막연한 사이가 되고 저마다 내노라하는 주장가였다고 하였다.⁹⁰⁾

함석태는 열성이 대단해서 심지어 기인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에 애착을 가졌다. 그는 문화재에 들인 정성은 정혼을 기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저녁 신들린 사람처럼 골동을 부리며 애완 하는 모습은 일견 사기그릇의 반질반질한 멧물(유약)의 표면을 뚫고 왕래 소통하는 정신의 소작인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바늘 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 모았다.⁹¹⁾

함석태가 지극히 아끼던 물건 가운데 금강산 연적의 일화가 있다. 금강산 모형으로 만들어진 연적이었다. 그는 이것을 하도 애지중지해서 꼭 싸서 가지고 다녔다. 연적자체야 얼마 안되지만 싸고 또 싸서 부피가 붙어났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타려면

조사가 상당히 심했다. 맨 처음 그 연적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상당히 세밀한 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로 추궁 당했다. 일본의 형사가 문화재 수집가의 정성스러운 열의를 이해했을 리 전혀 없다. 그러나 여러 번 왕래하는 동안에 나중에는 소문이 났다. 그래서 금강산 연적만은 검사를 할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⁹²⁾

함석태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언젠가 하루는 함석태가 원남동 근처를 지나가느라 웬 달구지에 이삿짐을 싣고 가는 것을 무심코 본 모양이었다. 당시는 현재의 서울대학병원 앞길은 인적이 드물고 적적하기 그지없었다. 소달구지를 유심히 바라보던 함석태는 이삿짐 끝에 대롱대롱 매어 달린 옛날 장롱에 눈길을 멈추고 펄떡 달구지 뒤를 쫓기로 하였다. 지금의 고려대 우석병원이 그 당시 여자의학전문학교였는데 지금은 개천을 덮었지만 그때는 그대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달구지가 개천 옆으로 난 길을 한참 따라가더니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갔다. 집을 알아둔 함석태는 속으로 뒹다고 하면서 돌아왔다. 그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롱을 문화재를 넣어두는 장으로 쓸 심산이었다. 때맞추어 우차에 이삿짐을 실어간 사람은 새로 들어간 집에 가서 쌀가게를 차렸다. 함석태는 매일 그 집을 찾아가서 쌀을 꼭 한 되씩만 샀다.

주인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함석태의 거동을 조금 미심쩍게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함석태도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 장롱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네 조상 적부터 내려오는 傳世品이라 절대로 안 된다고 딱 잡아떼어 별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문체의 장롱을 굴뚝 밑에다가 끈으로 엮어 대롱대롱 매달아놓고는 그리 대단치 않게 다루는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함석태는 조르고 졸라 결국에는 삼월백

90) 박병래, 앞의 신문, <집안망치는 골동>

91) 박병래, 앞의 신문, <금강산 연적>

92) 박병래, 앞의 신문, <금강산 연적>

화점(현재의 제일은행본점자리)에서 상등품으로 치는 신식 양복장을 하나 사다주고 그 골동 장롱을 얻어왔다.⁹³⁾

함석태가 중학동의 십자각 대문짝을 샀던 일도 잘 알려진 일이다. 이것은 현재 광화문에 있는 비각의 문이다. 일제 때 鐵이 남아나지 않을 무렵 함석태가 애써 구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함석태 치과가 담긴 사진에서 확인도 되었다. 함석태가 아니면 오늘날에 그 문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⁹⁴⁾

함석태는 문화제를 보는 눈이 탁월했다. 박병래의 진사연적은 머리 말에 놓고 자기도 하고 매일 만져보기도 하다가 사람들이 오면 자랑을 해도 모두가 좋다고 감탄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함석태가 우연히 들렀다가 그 연적을 보더니 대뜸 “선생, 그것 넣어두시죠”한다. 그때 함석태의 말을 듣고 자세히 뜯어보니 과연 가짜가 분명했다.⁹⁵⁾

함석태는 박병래의 부친이 자신을 보고 “함 선생, 골동을 하면 망한다는데 어땡소”하고 물으시니까, “그야 서화를 해야 망한다지만 골동은 안 그래요”라고 대답했다. 당시 윤치호 같은 분은 서화 때문에 재산을 탕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함석태는 박병래를 변호해 주기도 했다.⁹⁶⁾

광복되기 직전인 1945년 6월에 일제는 소개령을 내리고 모두들 지방으로 피신하라고 했다. 함석태도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화제를 모두 추려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 훗날 함각이 말하기를 5-6세였던 자신은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세 차나 신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들이 다 문화재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해방 후 공산정권하의 고향에서도 함석태는 있을 수가 없었다. 고향을 떠나 월남을 위

하여 황해도 방면으로 떠났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후 그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금강산연적은 어디에 있는가?⁹⁷⁾

5. 결 론

서양치과의학은 서양인 의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구강외과적 수술을 시술하였다. 서양인 치과의사들은 보철 치료를 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인 치과의사는 거류민단의 병원과 일본군의 한국주차군 사령부를 통하여 입국하여 철도 연변에서 개업을 했다. 한국인은 치과의사보다 입치사가 먼저 등장하였는데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이었다.

일제강점기의 강압적인 통치 방법은 정치·경제·사회·의료계는 물론 치과의료계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시기에 咸錫泰는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를 1912년에 졸업한 치과의사였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함석태를 자연인, 치과의사로서의 전문가, 그리고 문화재 수집가로 조명해보았다.

咸錫泰는 1889년 平安北道 寧邊에서 부유한 집안의 獨子로 태어났다. 함석태는 당시에는 생소한 학문이었던 치과 의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에서 학교와 교회 사업할 때의 전문이 배경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함석태는 매우 근엄하고 엄숙했으며 때로는 성품이 온아 하고 다감한 인정을 가진 분이었다.

함석태는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의 증언에 의하면 우국지사 姜宇奎의 어린 손녀 姜英才를 함석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웠다. 이는 함석태가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93) 박병래, 앞의 신문, <금강산 연적>

94)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9쪽.

95) 박병래, 앞의 신문, <금강산 연적>

96) 박병래, 앞의 신문, <집안망치는 골동>

97)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9쪽.

사실이다. 함석태가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함석태가 안창호를 치료했다는 사실은 우연하지 않은 일로서 함석태의 치과 의사로서의 위치와 당시 사회에서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함석태가 1912년에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한 것은 한국에 치과 의사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이었다. 치과 의사의 개업과 의료행위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제도가 마련된 후 함석태는 1914년 2월 5일에 치과 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하였다.

함석태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치과 의사로서 당당함을 보여주어 사회에 치과 의학에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그는 1914년 6월 19일경에는 서울 南部 曲橋 부근에서 개업을 시작하였다. 함석태는 보철 등을 하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함석태가 개업한 때의 서울의 치과 의료계 상황은 일본인 치과 의사가 4명 개업하고 있었고, 미국인으로 감리교 선교치과 의사인 한(David Edward Hahn)이 있었다. 한편 입치사는 10여 명이 있었다. 그중에 한국인 입치사들도 3-4명이 치수원을 개원하며 서양치과 의학을 수용한 치과 의료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함석태는 개원한 후 경성치과 의사회에 참가하여 친교를 맺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검사 또는 치아 위생에 대한 계몽운동에 동참하며 일본인과 비교되는 한국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치과 의사규칙에 의하여 치과 의사가 배출되고, 경성치과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치과 의사가 개업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안이하게 생업을 하였고 學術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뜻 깊은 하나의 단체가 탄생되었다. 1925년 漢城齒科醫師會가 설립된 것이다. 漢城齒科醫師會는京城齒科醫學校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 의사들에 의하여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齒科醫師會였다. 함석태는 漢城齒科醫師會의 會長이 되었다. 회원은 매년 증가되었다. 한성치과 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매주 만나는 친목기관이었다.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켜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5년 9월 25일 한성치과 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 의사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 의사회가 하나의 치과 의사회로써 조선연합치과 의사회에 참석한 사실은 통제를 위한 가시적인 어려움 작용하였을 것이다. 일제는 국민총력운동 조선연맹의 강압에 의해 1940년 조선연합치과 의사회 아래 도 단위 치과 의사회를 발족시키었다. 일제는 서울에서 1942년 10월 1일에 한성치과 의사회를 경성치과 의사회와 강제로 합치게 한다.

함석태는 구강위생계몽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함석태는 치과 위생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다. 함석태는 개업 안내 광고에서도 차별화된 구강위생계몽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입치사들이 하지 못하는 관혈적인 구강외과 수술을 함석태는 시술한다는 것이다.

함석태는 한국인 치과 의사로서 한국 사회와 한국 학생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한국 사회와 교육계에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그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대조적인 치과이용 실적을 비교했다. 그는 독무대이나 인 구비례에서 일본인들에 비하여 유리하나 개업이 어려웠고,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직업인으로 한국인 치과 의사는 힘든 상태였다. 그는 일본인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하는 중에도, 칫솔의 사용에 있어도 대중에게 학생의 구강위생에 관한 설명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함석태가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그는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을 써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는 문화재에 애착을 가져 그 열성으로 심지어 기인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그는 문화재를 보는 눈이 탁월했다. 그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 그가 지극히 아끼던 물건 가운데 금강산 연적이 있

었다. 그가 중학동의 십자각 대문을 구입한 일이 있다. 일제 때 鐵이 남아나지 않을 무렵 그가 애써 구하여 보관하였다. 그가 아니면 오늘날에 그 문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광복되기 직전 일제는 소개령으로 함석태도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화재를 가지고 고향으로 갔다. 광복 후 공산정권하 함석태는 고향을 떠나 황해도

방면으로 갔으나 그 후 그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금강산연적은 어디로 갔는가?

결론적으로 함석태는 일제 강점기에 전문 직업인으로 그가 속한 전문 집단의 상황을 인식한 지식인이었으며, 한국인으로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으나, 그가 속한 일제의 강제 통치 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朝鮮總督府官報》

《朝鮮醫報》

《朝鮮之齒界》

《滿鮮之齒界》

《동아일보》

《매일신보》

《중앙일보》

《朝鮮齒科醫學會 雜誌》

《京城齒科醫學會 雜誌》

《치과연구》

金永昌, 〈8·15후의 치과계 발전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朴明鎭, 〈한국의 치과의학〉,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申仁澈,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崔正奉, 〈한국치과계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咸錫泰, 〈구강위생-- 긴급한 요건〉,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檜崎東陽, 〈조선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물어〉,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安鍾書,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李鎬坤,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垣見庸三, 〈조선치과의 회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경성치과의학교의 연역대요〉,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生田信保,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치과학교실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교 창설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2.

윤계찬, 〈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1,2,3, 《치계》, Vol. 2, No. 9, 10, 12, 1968.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주요한, 『안도산전』, 삼중당, 1975.

박병래, 『백자애의 향수』, 심설당, 1980.

치과임상편집부,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1985; 6.

李漢水, 『李漢水齒學博物誌』, 석암사, 1976.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齒科醫史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정양모,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도록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1988.

장병혜, 『상록의 자유혼』, 창랑장택상기념사업회, 1992.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오세창 저, 동양고전학회 역, 《국역 근역서화징 상하》, 서울: 시공사, 1998.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1916-1943, 역사비평사, 2001.